

CEO Information

2009. 7. 15. (제713호)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20選

목차

요약

I. 불황과 CEO 독서

II. CEO를 위한 도서 20選

작성 : 이정호 수석연구원(3780-8121)

jungho7.lee@samsung.com

박준, 김근영, 김진혁, 김창욱, 최속희, 정영식
강한수, 도건우, 정호성, 이상우, 진현, 김상범
채승병, 정태수, 하송, 손민중, 박성민

감수 : 류한호 연구위원(3780-8279)

hanho.lyu@samsung.com

《 요약 》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CEO들의 독서경험과 선호도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1,233명 중 '한 달에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다'는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지만, 3권 이상 읽는 비율도 38.8%로 5년 연속 상승해 CEO들의 다독 성향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독서 화두로는 '마음의 평안과 희망 찾기', '전문적 교양지식 습득', '불황극복 아이디어 발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직원들에게 특정 서적 읽기를 권유하거나 책을 선물한 적이 있다는 CEO가 86.3%로 이른바 '독서경영'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 CEO가 읽을 만한 추천도서로 다음 20권을 선정하였다. '녹색성장', '금융위기', '위기대응', '갈등과 화합', '창의성' 등 시대상을 반영한 주제의 서적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난세 속 리더의 역할이나 삶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책들도 多數 선정되었다.

| | 제 목 | 저 자 | 한 줄 평 |
|------------------|---------------|-----------------------|----------------------------|
| 경제·경영 | 코드 그린 | 토머스 프리드먼 | '뜨겁고 붐비는 세계'를 구할 해법 |
| | 화폐전쟁 | 송홍빙 | 세계 근대사를 주도한 '隱幕의 국제금융자본' |
| | 카오틱스 | 필립 코틀러 외 | 격동의 시대에 필요한 경영시스템 |
| | 넛지 | 리처드 탈러 외 |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경제학 처방전 |
| | 일본전산 이야기 | 김성호 | 10년 불황을 이겨낸 '뚝심경영' |
| | 야성적 충동 | 조지 애커로프 외 | 경제를 움직이는 비이성적 심리의 해부서 |
| | 경영의 미래 | 게리 해멀 외 | 21세기형 경영을 위한 '경영혁신'의 청사진 |
| | 블랙 스완 |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 무시 못할 '0.1% 확률'의 힘 |
| | 동행이인 | 기타 야스토시 |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의 기본' |
|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 마이클 헬러 | 과도한 소유권 분할에 대한 경고 메시지 | |
| 인문·교양 | 아웃라이어 | 말콤 글래드웰 | 성공은 노력과 기회, 문화의 3박자로 이루어진다 |
| |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 늘 곁에서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는 엄마 이야기 |
| | 창조자들 | 폴 존슨 | 일반인을 위한 창조성 발휘 매뉴얼 |
| | 난세에 답하다 | 김영수 | 『史記』 속 인물로부터 배우는 난세의 리더십 |
| | 대항해 시대 | 주경철 | 세계화 과정의 海洋史的 해석 |
|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 | 고단한 삶의 기록이 전하는 희망의 역설 |
| | CEO 인문학 | 고승철 |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知的 권력기 |
| | 뇌, 생각의 출현 | 박문호 | 뇌를 통해 살펴본 인간 의식과 창조의 비밀 |
| | 아버지의 편지 | 정민, 박동욱 | 세월이 흘러도 변치않는 아버지의 마음 |
|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 김정운 | 후회없는 결혼을 위한 행복 전도서 | |

I . 불황과 CEO 독서

불황기 독서 풍속도: '기본으로 돌아가기'

□ 예전 불황에서 볼 수 없었던 奇現象으로 지식의 '풍요 속 빈곤'을 절감한 CEO들은 '과거'로부터 지혜를 빌리기 위한 독서에 열중

- 불황기에 1등 브랜드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것처럼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검증된' 古典과 스테디셀러가 인기

· 2008년 이전 출간물 배제원칙에 따라 추천도서 20選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CEO들은 『삼국지』, 『손자병법』, 『군주론』, 『논어』, 『징비록』, 『도덕경』, 『로마제국 흥망사』 등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을 추천

· 『동기와 성격』(매슬로우 著), 『신화의 힘』(캠벨 著), 『디지털이다』(네그로폰테 著), 『서양미술사』(곰브리치 著), 『프린시피아 매네지멘타』(윤석철 著) 등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스테디셀러들도 추천

일본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古典 돌아보기' 붐

▷ '현재의 위기 해결책을 원점에서 찾는다'는 생각에서 고전 읽기가 한창
- 일본 경영자들은 『성격론』(테오프라스토스 著), 『장자』, 『논어』, 『십팔사략』, 『정관정요』, 『사기』, 『길을 열다』(마쓰시타 고노스케 著), 『수상록』(몽테뉴 著),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헤이안 시대 설화집) 등을 '나의 고전'으로 추천

- “루소든, 스미스든 그들의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 실이 얽혀버린 분기점을 찾으면 사회가 피폐해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나카야마 겐, 서양 고전 전문번역가)

(자료: "古典が今おもしろい". (2009. 6. 27.). 『週刊東洋經濟』, 36~81.)

□ 한편, CEO들은 현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는 신간서적에도 관심

설문을 통해 본 국내 CEO의 독서 경향¹⁾

- '한 달에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다'는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으나 3권 이상 읽는 비율(38.8%)도 5년 연속 상승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CEO들의 多讀 성향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

국내 CEO의 독서량

(단위: %)

| 월 독서량 | 거의 읽지 못한다 | 1~2권 | 3~4권 | 5권 정도 | 6권 이상 |
|-------|--------------|----------------|----------------|--------------|--------------|
| 응답비율 | 1.7 (2.0) | 59.5 (59.7) | 25.9 (26.6) | 5.5 (5.8) | 7.4 (5.8) |

주: ()안은 2008년 수치

- 최근 독서 화두는 '마음의 평안과 희망 찾기', '전문적 교양지식 습득', '불황극복 아이디어 발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국내 CEO의 독서 화두

(단위: %)

| 독서 화두 | 경제위기의 원인 이해 | 불황기 소비자 마음 읽기 | 불황극복 아이디어 발굴 | 마음의 평안과 희망 찾기 | 전문적 교양지식 습득 | 기타 |
|-------|-------------|---------------|--------------|---------------|-------------|-----|
| 응답비율 | 8.9 | 4.3 | 22.5 | 29.8 | 28.7 | 5.8 |

- '지난 1년간 직원들에게 특정 서적 읽기를 권유하거나 책을 선물한 적이 있다'는 CEO가 86.3%로 나타나 '독서경영'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직원들에게 추천하거나 선물한 책' 분야별 상위 리스트

| 경제·경영 | | | 인문·교양 | | |
|----------|--------|-----------|---------|---------|-----------|
| 제목 | 저자 | SERI 선정여부 | 제목 | 저자 | SERI 선정여부 |
| 일본전산 이야기 | 김성호 | 2009년 | 아웃라이어 | 말콤 글래드웰 | 2009년 |
| 화폐전쟁 | 송홍빙 | 2009년 | 시크릿 | 론다 번 | 2008년 |
| 이기는 습관 | 전옥표 | 2007년 |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 2009년 |
| 육일약국 갑시다 | 김성오 | 2008년 | 무지개 원리 | 차동엽 | 2007년 |
| 히든 챔피언 | 헤르만 지몬 | 2008년 | 배려 | 한상복 | 2006년 |

¹⁾ 2009년 6월 24일~26일에 걸쳐 SERICEO<www.sericeo.org> 및 당사 홈페이지<www.seri.org>의 CEO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33명이 응답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20選

- SERICEO<www.sericeo.org>와 SERI 홈페이지<www.seri.org>의 CEO 회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20권'을 선정
- CEO 회원 및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추천이 많았던 도서를 대상으로 내부 검증을 거쳐 '경제·경영'과 '인문·교양' 분야 각 10권을 채택
 - 선정기준 : ① 외부 CEO 추천
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추천 및 내부 검증
③ 2008년 이후 발간(2008년에 이미 소개된 서적은 제외)
④ 인문·교양 부문의 경우 종교 관련 서적은 제외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20選

| 경제·경영 10選 | | 인문·교양 10選 | |
|--------------|-------------|------------------|---------|
| 제 목 | 저 자 | 제 목 | 저 자 |
| 코드 그린 | 토머스 프리드먼 | 아웃라이어 | 말콤 글래드웰 |
| 화폐전쟁 | 송홍빙 |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
| 카오틱스 | 필립 코틀러 외 | 창조자들 | 폴 존슨 |
| 넛지 | 리처드 탈러 외 | 난세에 답하다 | 김영수 |
| 일본전산 이야기 | 김성호 | 대항해 시대 | 주경철 |
| 야성적 충동 | 조지 애커로프 외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 |
| 경영의 미래 | 게리 해멀 외 | CEO 인문학 | 고승철 |
| 블랙 스완 | 니심 니콜라스 탈레브 | 뇌, 생각의 출현 | 박문호 |
| 동행이인 | 기타 야스토시 | 아버지의 편지 | 정민, 박동욱 |
|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 마이클 헬러 |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 김정운 |

- '녹색성장', '금융위기', '위기대응', '갈등과 화합', '창의성' 등 시대상을 반영한 주제의 서적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난세 속 리더의 역할이나 삶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책들도 多數 선정

II. CEO를 위한 도서 20選

1. 코드 그린(Code Green)

【 토머스 프리드먼 지음 | 이영민 · 최정임 옮김 |
21세기북스 | 2008년 12월 출간 | 592쪽 】



'뜨겁고 봄비는 세계'를 구할 해법

-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보존 등 전 지구적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 생존전략을 제시
 - 지구온난화와 세계화의 확산, 글로벌 중산층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와 에너지 부족사태가 심화될 것이라 예측
 - "에너지수급과 석유독재,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핵심 문제는 2000년 직후에 임계치에 도달" (77쪽)
 - 인류가 근본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
- 미국식 多소비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親환경 그린혁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 핵심 전략으로 ① 스마트그리드 활용 ② 신재생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정책 ③ 저개발국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경제 지원 ④ 親환경을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아웃그리닝(Outgreening)¹²⁾ 등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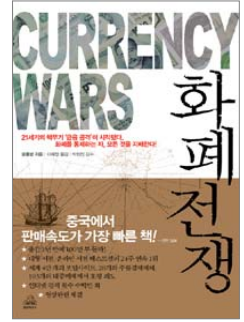
《독서 포인트》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상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
- 현재 우리 기업이 '多소비형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숙고

¹²⁾ 남보다 녹색성장에서 앞서나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2. 화폐전쟁(貨幣戰爭)

【 송흥빙 지음 | 차혜정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8년 7월 출간 | 512쪽 】



세계 근대사를 주도한 '隱幕의 국제금융자본'

□ 서구 학자가 아닌 중국인 금융전문가가 팩션(faction: fact+fiction)으로 기술한 세계 근대 경제사

- 세계경제사는 국제금융자본³⁾의 화폐발행권 확보와 통제 과정으로, 국제금융자본은 한 나라와 전 세계 화폐발행권의 독점을 추구한다고 주장

· "돈의 흐름을 잡는 자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419쪽)

· 英蘭은행 및 美 FRB의 설립, 1·2차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이 대표적 사례

□ 국제자본이 중앙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다는 시각에 기초해 과거와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

- 저자가 지목하는 국제자본의 지배 방식은 '양털 깎기(Fleecing of the flock)'⁴⁾와 세계경제를 '통제하면서 해체하기'⁵⁾

《독서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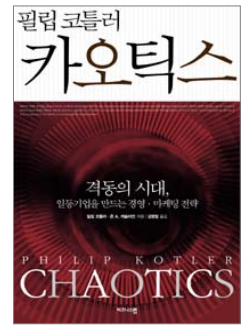
- 세계 근대사의 굵직한 사건에 개입한 국제금융자본의 역할, 이들의 경쟁력 및 기업에 대한 공략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
- 국제금융자본의 과거 행태를 통해 국제금융질서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유익

³⁾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J.P. 모건, 록펠러, 워버그 등이 소유한 금융자본

⁴⁾ '양털 깎기': 국제자본이 미국과 유럽 내 금융을 지배하는 방식. 신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거품을 조장하고 사람들이 투기에 집중하게 한 다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 경제불황과 자산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헐값에 필요자산을 매입

⁵⁾ '통제하면서 해체하기':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방식. 자본자유화로 신흥국 등에 자금을 공여하여 통화팽창 및 거품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후 자본을 철수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유발.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개입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고 주요 자산을 헐값에 매입

3. 카오틱스(Chaotics)



【 필립 코틀러 · 존 캐슬라이언 지음 | 김명철 · 방영호 옮김 | 비즈니스맵 | 2009년 4월 출간 | 296쪽 】

격동의 시대에 필요한 경영시스템

□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지침을 담은 책

- 비즈니스 리더가 격동기에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 패러다임, 시스템을 제시

·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격동을 감지하고, 혼돈을 예측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 생존의 절대적인 요건" (158쪽)

□ 오늘날을 '격동의 발생이 일상적인 시기'로 규정하고 새로운 기업경영 모델인 '카오틱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 '카오틱스 경영시스템'은 3단계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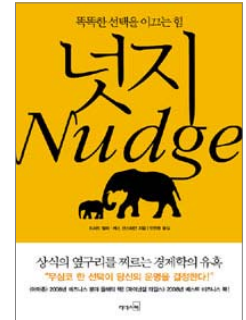
| 실행 단계 | 주요 내용 |
|-------------------|--|
| 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 격동을 감지하고 조직의 취약성과 잠재된 기회를 식별 |
| 2. 키(key) 시나리오 구성 | ▷ 혼돈에 대비하여 최악/최상/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 |
| 3. 전략 선택 | ▷ 위기와 기회의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선별하고 각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 |

《독서 포인트》

- 내가 속한 산업이나 시장에서 저자가 지적한 '격동'이 얼마나 빈번한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점검
- '카오틱스 경영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과 전략행동 체크리스트를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

4. 넛지(Nudge)

【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지음 | 안진환 옮김, 최정규 해제 | 리더스북 | 2009년 4월 출간 | 428쪽 】



갈등해소를 위한 행동경제학 처방전

□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현실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

-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콘⁶⁾'과 달리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넛지'란 원래 '슬쩍 옆구리 찌르기'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행동특성을 이용해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
 - 학교에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금하는 대신 구내식당의 음식 위치를 바꾸어 몸에 좋은 음식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넛지

□ 엄격한 규제와 자율방임의 극단 사이에서 넛지를 통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증진하면서도 비합리적 선택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의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한다는 '단순측정효과'를 넛지로 활용
 - '선거일 전날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투표율을 25%나 증가시킬 수 있음
- 매일 자신이 사용한 에너지 총량을 확인하게 만드는 넛지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

《독서 포인트》

- 경제학이 심리학, 인지과학 등과 결합되는 학문 간 융합의 조류를 감지
- 경제적 인센티브나 법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응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

⁶⁾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적 인간)의 약칭으로, 주류경제학의 이론체계에서 가정하는 '언제나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선택을 하는 이상화된 인간상'을 의미

5. 일본전산(日本電産) 이야기

【 김성호 지음 | 쌤앤파커스 | 2009년 1월 출간 | 280쪽 】



10년 불황을 이겨낸 '뚝심경영'

□ 3평짜리 창고에서 시작해 창업 35년 만에 직원 13만명 · 매출 8조원의 대기업이 된 일본전산의 성공비결을 해부

- 교토에 본사를 둔 일본전산은 10년 불황기에도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형정밀모터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부상

□ 철저한 기본기와 '할 수 있다'는 패기를 강조하며 오일쇼크와 10년 불황을 이겨낸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의 뚝심경영을 조명

- 명문대 출신을 뽑을 수 없었던 창업 초기에 목소리 큰 사람(자신감), 설익은 밥 빨리 먹는 사람(긍정적 태도), 오래 달리는 사람(투지) 등을 채용해 최고의 직원으로 양성하는 등 기본기를 강조

· 업계에서는 일본전산의 직원들에 대해 '뚝뚝하고 머리가 좋다'라기보다 '지독하리만큼 우직하고 끈질기다'고 평가

-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행동지침을 통해 빠른 실행력과 열정의 조직문화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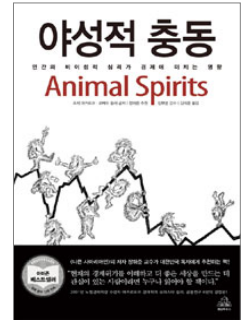
· "스피드가 5할, 중노동이라 할 만큼의 노력이 3할, 능력은 1할 5푼, 학력은 고작 3푼, 회사 지명도는 2푼. 이것이 불황을 이기는 기업의 전략 안배이다"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 (7쪽)

《독서 포인트》

- 위기일수록 조직원의 기본기와 패기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
- 성공에 수반되는 자만과 타성을 극복하고 조직에 상시적인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

6.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 조지 애커로프 · 로버트 실러 지음 | 김태훈 옮김 |
랜덤하우스 코리아 | 2009년 6월 출간 | 344쪽 】



경제를 움직이는 非이성적 심리의 해부서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애커로프와 '행태금융이론'⁷⁾의 개척자 실러가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 원동력으로 '야성적 충동'을 제시

- '야성적 충동'⁸⁾은 '행동에 대한 즉흥적인 욕구'로 비경제적 · 비합리적 심리를 통칭

· "야성적 충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제모델은 진정한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 (261쪽)

□ 경기순환, 빈곤의 대물림 등 경제의 수수께끼를 해명하기 위해 '자신감', '공정성', '부패', '화폐착각', '이야기'라는 야성적 충동의 5대 측면을 소개

- ① 자신감(Confidence): 분위기에 휩쓸린 가상적 믿음에 따라 행동
- ② 공정성(Fairness): 이해타산보다 共同善 추구를 타인에게 요구
- ③ 부패(Corruption):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익을 위해 부정을 감수
- ④ 화폐착각(Money Illusion): 물가상승률을 간과한 채 명목가치만 중시
- ⑤ 이야기(Stories): 사건들을 유형화된 틀로 짜맞추어 세상을 이해

《독서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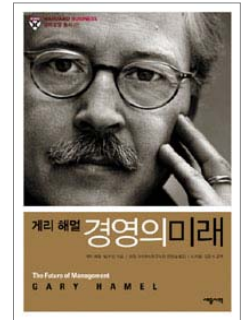
- 현 글로벌 금융위기 배후에 어떤 집단심리의 다이내믹스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
- 경제변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새롭게 고민

⁷⁾ 행태금융(Behavioral finance)이론은 투자자의 비이성적 행태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존의 합리적 행동 가설이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⁸⁾ 야성적 충동은 케인스가 인간의 비경제적 본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용어

7. 경영의 미래(The Future of Management)

【 게리 해밀 · 빌 브린 지음 | 권영설 외 옮김 |
세종서적 | 2009년 2월 출간 | 304쪽 】



21세기형 경영을 위한 '경영혁신'의 청사진

- '핵심 역량' 개념의 주창자인 경영전략가 게리 해밀이 현대경영의 종말을 선언하고, 21세기 미래경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혁신서
 -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영방식의 대부분은 100여년 전 고안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실효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미래경영의 핵심 개념으로 '경영혁신 (Management Innovation)'을 강조
-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계놈'⁹⁾ 자체를 바꾸는 과감한 변신을 촉구
 - '익숙한 기존 관습으로부터 탈피', '경영원칙 재정립', '주변부로부터의 학습' 등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
 - "현상유지만을 하게 만드는 편견과 싸워야 한다. 누구나 다른 이들의 격언에 길들여져 있어 자신의 능력조차 잊기 쉽다" (148쪽)
 - 소규모 팀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형 조직으로 직원의 열정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홀푸드**, **고어** 등 '경영 2.0' 사례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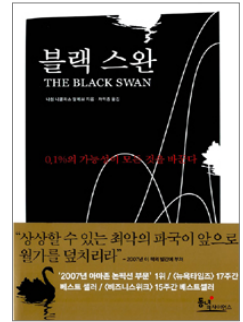
《독서 포인트》

- 기존의 경영학과 경영방식이 미래환경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저자의 문제제기를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
- 제시된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에 적용 가능한 경영혁신 모델을 모색

⁹⁾ 현대기업의 핵심 경영원칙인 경영계놈으로 표준화, 전문화, 계획과 통제, 계층화, 정렬, 보상체계 등을 지적

8. 블랙 스완(The Black Swan)

【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 차익종 옮김 | 동녘사이언스 |
2008년 10월 출간 | 548쪽 】



무시 못할 '0.1% 확률'의 힘

□ 2007년 초 월 街의 붕괴를 경고한 저자의 주장이 세계 금융위기로 현실화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

- '블랙 스완'은 9·11 테러처럼 ① 예측이 어렵고, ② 발생 시 큰 충격을 동반하며, ③ 전문가들이 뒤늦게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든다는 3가지 속성을 보유

- 블랙 스완은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발견되면서 '백조는 흰색'이라는 오랜 통념이 단숨에 붕괴된 일화에서 유래

□ 현대사회를 블랙 스완이 빈발하는 '극단의 왕국'으로 파악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려 하지 말고 공격적인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오히려 블랙 스완이 출몰할 기회를 늘릴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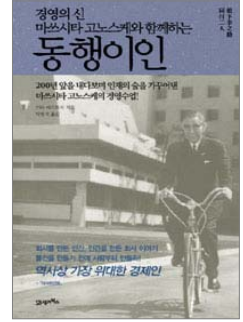
- "검은 백조 현상은 예측 불가능성이 특징이므로 그 미지의 가능성에 순응하는 편이 옳다. 반지식, 즉 우리가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27쪽)

《독서 포인트》

- 과거의 성공방식이나 전문가의 의견, 집단사고 등에 의존하는 조직은 블랙 스완에 직면했을 때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
-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과연 우리 기업은 돌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점검

9. 동행이인(同行二人)

【 기타 야스토시 지음 | 박현석 역 | 21세기북스 |
2009년 1월 출간 | 416쪽 】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의 기본'

-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칭송받는 파나소닉의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인생과 경영철학을 다룬 傳記
 - 경제불황, 협력사·임직원과의 갈등, 신제품 개발 실패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기술
- 마쓰시타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이념으로 삼는 '인재중시'와 '지속적인 제품혁신', '고객 제일주의' 등의 사상을 90여년 전부터 주창
 - 대공황시기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전 종업원의 '半日 근무, 半日 영업' 정책으로 난관을 돌파
 - "경기가 좋지 않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 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159쪽)
 -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製販一致'는 혁신 제품 탄생의 원동력
 - 1918년 하나의 플러그를 서로 사용하려고 싸우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2개의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를 착안
 -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물가가 치솟았지만 고객을 위해 기존 가격을 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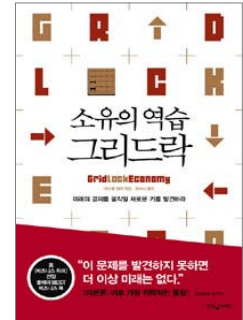
《독서 포인트》

-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위기극복 사례를 통해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를 모색
- 전기에 등장하는 어록과 자신의 경영철학을 비교해보고, 100년 후에도 통할 수 있는 경영 화두를 고민

10.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The Gridlock Economy)

【 마이클 헬러 지음 | 윤미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9년 2월 출간 | 352쪽 】



과도한 소유권 분할에 대한 경고 메시지

□ 私的 재산권의 과잉이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美 컬럼비아大 법경제학 교수의 도발적 문제제기를 담은 책

- 공유자원의 남용(Overuse)을 막기 위해 도입한 소유권 제도가 경제를 '그리드락' 상태로 만들어 자원의 과소활용(Underuse)을 유발

· 그리드락이란 원래 교통정체를 의미하는데, 이 책에서는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현상을 지칭

· 아일랜드는 토지분할상속제로 농업이 영세화되어 대부분의 농가가 主食인 감자만 재배하다가 1840년대 감자기근으로 백만여명이 餓死

□ 저자는 소유권이 분할됨으로써 누구도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反공유재의 비극'¹⁰⁾을 해결하기 위한 역발상의 접근을 제시

- 특히 묶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보완재 시장에서는 反독점 대신 親독점이 그리드락 상태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

· "정부 정책은 소유자들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뭉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93쪽)

《독서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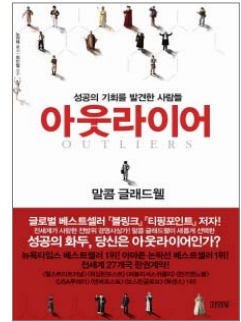
-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유권 분할 등으로 그리드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
-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소유권자 간 협력이 필수라는 통찰을 획득

¹⁰⁾ Tragedy of the Anticommons: 게릿 하딘(Garret Hardin)이 1968년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에 빗대어 제시한 개념(공유지의 비극이란 목초지, 어장 등 주인 없는 자원이 이용자들의 남용으로 결국 황폐화됨을 의미). 反공유재란 사적 소유권이 과도하게 분할된 재화로서, 사적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共有財와 대책점에 위치

11. 아웃라이어(Outliers)

【 말콤 글래드웰 지음 | 노정태 옮김 | 김영사 |

2009년 1월 출간 | 352쪽 】



성공은 노력과 기회, 문화의 3박자로 이루어진다

□ 세계적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성공하는 상위 1%의 비결'을 다양하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자기개발서

- 빌 게이츠, 존 D. 록펠러, 비틀스, 모차르트,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인 등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선 성공자들을 '아웃라이어'로 규정

□ 노력, 열정, 기질(DNA)만으로는 아웃라이어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기회요소, 문화적 배경 등의 숨겨진 이점이 핵심 요인이라는 흥미로운 주장과 실증을 제시

- 예컨대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인물 75명 중 14명은 모두 1830년대부터 1840년대 초 미국에서 출생(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등)

· "1860년대와 1870년대에 미국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철도가 건설되고 월 街가 태동하는 등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다.

만약 누군가가 184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면 그는 기회를 놓친 것" (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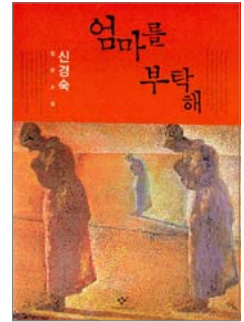
- 美 펜실베이니아 州 로제토 마을의 사망률이 미국 평균보다 30~50%나 낮은 것은 특별한 유전자나 식습관이 아닌 이탈리아 남부로부터 이식된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에 기인

《독서 포인트》

- 新사업에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타이밍과 기업문화도 중요함을 인식
- 책 뒤편에 정리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및 참고문헌을 활용한다면 심리학과 문화인류학을 아우르는 풍부한 지적체험이 가능

12.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지음 | 창비 | 2008년 11월 출간 | 299쪽 】



늘 곁에서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는 엄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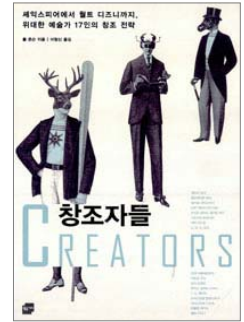
- 실종된 엄마를 찾으며 가족들이 느낀 후회와 연민, 고통과 증오의 감정이 마침내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그린 감성 소설
 - 희생을 강요당했던 엄마의 삶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무시당해 왔던 엄마의 숨은 삶까지를 가족이라는 다양한 화자의 시선을 통해 조명
 - 소설은 우리에게 숨겨두었던 엄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고, 소설 속 엄마가 곧 '우리의 엄마'일 수 있음을 암시
- 우리네 엄마의 삶이 실망스럽고 불쌍한 삶이 아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고개 숙이며 인정하게 만드는 소설
 - '여성'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엄마를 외면해왔던 우리들의 허물을 뉘우치게 만드는 계기
 -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삶이 아닌 엄마만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해 왔던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화상
 - "나는 평생 니 엄마한테 말을 안하거나 할 때를 놓치거나 알아주었거나 하며 살았고나. 인자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디 들을 사람이 없구나" (딸과 아버지의 전화 대목, 198쪽)

《독서 포인트》

- 가까이 있으나 그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어려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족으로서가 아닌 그들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장으로 활용

13. 창조자들(Creators)

【 폴 존슨 지음 | 이창신 옮김 | 황금가지 |
2009년 3월 출간 | 500쪽 】



일반인을 위한 창조성 발휘 매뉴얼

- 인류 예술사에 혁신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를 분석함으로써 창조성의 본질을 규명한 교양인문서
 - 셰익스피어(문학), 뒤러(미술), 바흐(음악), 디오르(패션), 디즈니(영화) 등 각 분야에서 창조적인 인물로 존경받는 17명의 삶을 분석
 - 일대기적 기술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한 이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

-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누구나 탁월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
 - 최고의 창조자로 칭송받는 위인들도 초기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학 사조, 미술양식, 영화 장르 등 '舊習의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창조적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재능을 극한의 수준까지 갈고 닦음으로써 걸작을 창출
 - "인간은 누구나 창조력을 타고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창조 행위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24쪽)

《독서 포인트》

- 창조적인 결과물은 오랜 숙성과정이 필요한 '인고의 산물'임을 이해
- 저자의 분석을 응용해 우리 조직에 창조성의 발산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

14. 난세에 답하다

【 김영수 지음 | 알마 | 2008년 12월 출간 | 440쪽 】



『史記』 속 인물로부터 배우는 난세의 리더십

- 중국의 대표적 역사서인 『史記』에 담긴 수많은 인간의 선택과 고뇌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역사 수필
 - 『史記』는 고대 중국 각 왕조의 부와 경제, 조직과 경영, 외교와 전쟁의 역사를 총망라한 巨作¹¹⁾
 - 역대 황제로부터 무명의 천민에 이르는 '史記'의 주인공들이 지혜와 통찰력으로 빚어 낸 고사성어, 명언, 명구의 참뜻을 생생하게 전달
- 생활고 및 계층 간 갈등으로 꿈과 희망, 이상의 기반인 '믿음'을 상실해 버린 작금의 '난세'에서는 사람이 곧 해답임을 명쾌하게 역설
 - 위기극복을 위해 이르러야 할 경지로 '지인논세(知人論世)'¹²⁾를 설정하고, 위인들의 언행이야말로 그 경지에 달하는 지름길임을 제시
 -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의 고통을 딛고 일어난 사마천, 끊임없이 진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한 유방, 약소국이었으나 내정개혁을 통해 당당한 외교의 정점을 보여준 자산¹³⁾ 등이 그 先例

《독서 포인트》

- 인간 군상의 만화경인 『史記』의 주인공에 자신의 현재 위치와 처지를 대입하여 '지인논세' 리더십 구축의 밑거름으로 활용
- '유머를 활력소로 활용하는 여유', '진퇴를 선택하는 지혜', '불황을 역이용하는 용기' 등 CEO가 갖추어야 할 기업경영의 지혜와 덕목을 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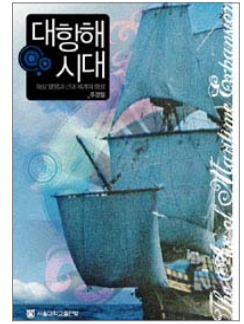
¹¹⁾ 황제의 기록인 '本紀', 당대 주요 사건을 다룬 '表', 국가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書', 제후들의 이야기인 '世家',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列傳' 등 총 130권 52만 6,500字로 구성

¹²⁾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한다'는 뜻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대세를 읽는 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

¹³⁾ 20세 약관의 나이에 내란을 진압하고 재상의 자리에 오른 鄭나라의 정치가

15. 대항해 시대

【 주경철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8년 3월 출간 | 584쪽 】



세계화 과정의 海洋史的 해석

- 서양사학자인 저자가 근대 이후의 세계역사를 대륙문명이 아닌 해양 세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한 역사서
 - 15세기 이후 해양세계의 팽창으로 인해 고립되어 발전했던 지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탄생
- 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소통'과 '폭력'의 키워드로 요약
 -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계기로 고립되었던 세계가 海路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수평적 구조가 확장되는 세계화가 태동
 - 세계화 과정에서 유럽이 군사력이라는 폭력을 바탕으로 교역을 주도함에 따라 갈등과 지배로 대변되는 수직적 구조가 형성
 - 유럽과 동남아권 전쟁의 목표를 각각 '영토정복을 위한 폭력'과 '儀式的 힘 겨루기'로 극명하게 대비
 - 교역의 확산과 부의 축적, 문화의 상호교류 등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환경 파괴, 질병의 세계화, 문화의 획일화 등 부작용도 지적
 - "환경 파괴를 일으킨 까닭에 유럽 인들은 스스로 '자연보호'의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395쪽)

《독서 포인트》

- 해양을 통한 세계화를 실천하여 세계화의 주도권을 쥐게 된 15세기 유럽을 통해 향후 전개될 신해양시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
- 독창적 역사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논거를 제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

16.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 지음 | 샘터 | 2009년 5월 출간 | 236쪽 】



고단한 삶의 기록이 전하는 희망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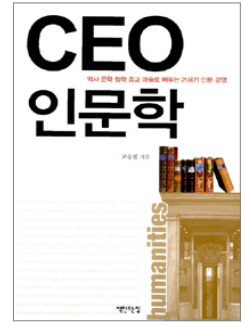
- 영문학 교수이자 번역가로 유명한 저자가 2000년 이후 한 월간지에 연재한 에세이를 한데 묶은 책
 - 오랜 기간 암과 투병하다 출간 직전(2009년 5월)에 세상을 떠난 저자의 개인사가 맞물리면서 역설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생생히 전달
- 주변과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저자의 前作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해온 삶에 대한 감사와 긍정을 담담한 筆致로 서술
 -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불편한 몸, 두 차례에 걸친 암 발병 등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天刑'이 아니라 축복받은 '天惠'로 인식
 -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일이 있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등을 '축복'이라고 설명
 - 죽음의 문턱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며 감상과 우울에 젖는 대신 여유와 유머로 인간과 삶에 대한 애정을 전달하고자 노력
 -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11쪽)

《독서 포인트》

- 속도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일상에서 한발 물러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활용
- 개인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기본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17. CEO 인문학

【 고승철 지음 | 책만드는집 | 2009년 4월 출간 | 435쪽 】



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知的 편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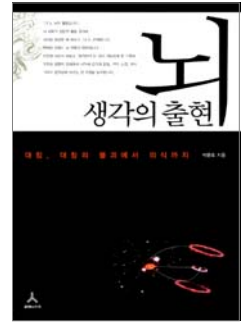
- 경영·경제 분야 기자 출신의 저자가 수강한 대학 인문학 강좌의 내용과 관련 분야에 대한 자신의 지적 편력을 한데 묶은 학습기 형식의 책
 - 역사, 문학, 철학·종교, 예술 분야 31개 인문강좌의 내용 요약과 함께, 강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소개
 - '유교 문화권의 연원과 의미', '미국의 지적 전통', '신화로 보는 중국', '창조경영과 인문학적 상상력' 등의 강좌내용을 소개
- '인문학적 경영'이 위기에 봉착한 21세기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저자는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게 된 계기를 '경영학 自力으로는 늪에 빠진 기업을 건져올릴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인문학을 익힌 CEO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인간 이해를 통한 상상력의 극대화로 요약될 수 있겠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해지면 문제 해결능력이 커지지 않겠는가" (7쪽)
 - 고전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경영자의 시야와 사고의 지평을 확대

《독서 포인트》

-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당 분야 석학과 전문가의 강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인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독자들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도 관심분야의 소양을 축적할 수 있도록 풍부한 텍스트와 전문가 정보를 제공

18. 뇌, 생각의 출현

【 박문호 지음 | 휴머니스트 | 2008년 10월 출간 | 502쪽 】



뇌를 통해 살펴본 인간 의식과 창조의 비밀

□ 인간 의식과 思考의 출현을 우주 생성원리 및 인간 진화과정을 빗대어 탐구한 교양과학서

- 이 모든 과정을 '대칭'과 '대칭의 붕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주장

· 우주의 완전한 대칭이 초신성¹⁴⁾의 폭발로 붕괴되기 시작하여 생명체가 출현하고, 인간의 뇌가 진화했다는 式으로 주장

- '전체를 위해 각각의 단세포들이 자율성을 포기한 결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진화가 가능했다'는 등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뇌 과학과 의식 및 창의성을 결합

-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조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뇌의 능력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설명

-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

· "창의성의 전제 조건은 공부의 양입니다. 일단 정보량이 임계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충분한 학습량이 있어야 번뜩임이 일어납니다" (409쪽)

《독서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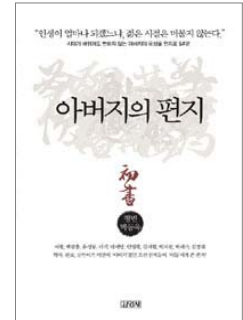
-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처하면서 진화해온 뇌를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경영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시사점을 획득

- 창의성이 발현되는 조건을 활용하여 조직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¹⁴⁾ 초신성(超新星, Supernova): 항성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현상

19. 아버지의 편지

【 정민 · 박동욱 엮음 | 김영사 | 2008년 10월 출간 | 349쪽 】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

- 이황, 류성룡, 박세당, 박지원 등 학자, 관료, 문인이기 이전에 '아버지'였던 조선의 문장가 10명이 자식의 앞날을 염려하며 쓴 편지글 모음집
 - 공부법, 수험준비, 모친 봉양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통해 당대의 생활상과 아버지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
- 멀리서 노심초사하며 가족에 대한 염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애뜻한 父情은 시대를 초월해 심금을 울림
 - 관직 때문에, 혹은 죄인의 몸이 되어 가족과 떨어지게 된 아버지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대신 엄한 질책으로 흐트러짐 없이 살 것을 당부
 - "너희가 자못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고, 게다가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한다더구나... 과거에 급제한다 한들 그 사람을 어디다 쓰겠느냐? 놀라고 비통하여 죽고만 싶구나" (백광훈의 편지, 49쪽)
 - 자녀가 자칫 학업을 게을리할까 염려하는 마음은 오늘날의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 "옛 사람은 공부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고 했다. 너희가 날마다 나아갈 줄 모르니, 날로 퇴보하여 마침내 하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까 걱정된다" (이황의 편지, 27쪽)

《독서 포인트》

-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正道를 가라고 꾸짖는 嚴父의 모습 뒤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한없이 자애로운 父情이 있음을 발견
- 한자에 조예가 깊은 독자라면, 부록에 제시된 편지 원문을 읽으며 字句에 숨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헤아려보는 것도 좋은 피서법 중 하나가 될 듯

2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 김정운 지음 | 쌤앤파커스 | 2009년 6월 출간 | 304쪽 】



후회 없는 결혼을 위한 행복 전도서

□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에게 과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만드는 책

- 문화심리학자인 저자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의 행동 및 정서상 특징들을 실감나는 사례들을 이용해 설명

- 왜 만나면 꼭 명함부터 교환하는지, 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미숙한지, 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입꼬지를 내리는지 등을 분석
- 한국, 일본 남성은 은퇴 후 비로소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 하지만 아내와 기쁨을 공유해본 적이 없었기에 황혼이혼에 취약

□ 저자가 말하는 행복이란 소소한 영역에서부터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

- 산업화 시대에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근면과 성실이 변화된 시대에는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조직과 사회가 개인에 대해 재미와 즐거움의 추구를 터부시할 경우 창의성을 잃고 정체
- "사는 게 재미있으면, 일하는 게 재미있으면, 근면 성실하지 말라고 해도 근면 성실해진다.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 (153쪽)

《독서 포인트》

- 제시된 다양한 일상 생활의 예화를 통해 생소한 심리학 개념을 쉽게 터득
- 대한민국 남성의 내면에 자리잡은 행동양식들이 가족과 사회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야기함에 주목

【부록】 2005~08년도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20選

2008년 (CEO Information 제662호, 2008.7.9.)

| 경제 · 경영 | | 인문 · 교양 | |
|------------|------------|--------------------|-----------|
| 제 목 | 저 자 | 제 목 | 저 자 |
| 경제학 콘서트 2 | 팀 하포드 |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 정진홍 |
| 마이크로트렌드 | 마크 펜 외 | 세종처럼 | 박현모 |
| 미래를 읽는 기술 | 에릭 갈랜드 | 젊음의 탄생 | 이어령 |
| 육일약국 갑시다 | 김성오 | 로마인 이야기 15 | 시오노 나나미 |
|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 데이비드 워시 | 대국굴기 | 왕지아평 외 |
| 씽크 이노베이션 | 노나카 이쿠지로 외 | 시크릿 | 론다 번 |
| 원점에 서다 | 사토 료 | 제국의 미래 | 에이미 추아 |
| 히든 챔피언 | 헤르만 지문 | 통합의 리더십 | 아담 카헤인 |
| 스틱 | 칩 히스 외 | 마지막 강의 | 랜디 포시 |
| 빅 씽크 전략 | 번트 H. 슈미트 | 아름다운 부자, 척 피니 | 코너 오클리ერი |

2007년 (CEO Information 제613호, 2007.7.18.)

| 경제 · 경영 | | 자기계발 및 기타 | |
|-----------------|--------------------|------------|--------------|
| 제 목 | 저 자 | 제 목 | 저 자 |
| 이기는 습관 | 전옥표 | 전쟁의 기술 | 로버트 그린 |
| 부의 미래 | 앨빈 토플러 | 경청 | 조신영 외 |
| 힘의 이동 |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 에너지버스 | 존 고든 |
| 삼국지 경영학 | 최우석 | 남한산성 | 김훈 |
| 위키노믹스 | 돈 탭스코트 외 | 생각의 탄생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외 |
| 미래의 물결 | 자크 아탈리 | 무지개 원리 | 차동엽 |
| 마인드 세트 | 존 나이스비트 | 컬처코드 | 클로테르 라파이유 |
| IBM 한국보고서 | IBM |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 정민 |
|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 | 유필화 | 내 몸 사용설명서 | 마이클 로이젠 외 |
| 몰입의 경영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 아부의 기술 | 리처드 스텐걸 |

2006년 (CEO Information 제563호, 2006.7.26.)

| 경제 · 경영 | | 자기계발 및 기타 | |
|---------------------|----------|-----------------|-------------|
| 제 목 | 저 자 | 제 목 | 저 자 |
| 경제학 콘서트 | 팀 하포드 | 마시멜로 이야기 | 호아킴 데 포사다 |
| 사장으로 산다는 것 | 서광원 | 배려 | 한상복 |
| 세계는 평평하다 | 토머스 프리드먼 | 긍정의 힘 | 조엘 오스틴 |
|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 피터 드러커 |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 이민규 |
| 깨진 유리창 법칙 | 마이클 레빈 | 인생수업 | E. 퀴블러 로스 외 |
| 경영 · 경제 · 인생 강좌 45편 | 윤석철 | 핑!(Ping) | 스튜어트 A. 골드 |
| 블링크-첫 2초의 힘 | 말콤 글래드웰 | 완벽에의 총동 | 정진홍 |
| Passion 백만불짜리 열정 | 이채욱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 카르마 경영 | 이나모리 가즈오 | 디테일의 힘 | 왕중추 |
| 새로운 미래가 온다 | 다니엘 핑크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한비아 |

2005년 (CEO Information 제510호, 2005.7.20.)

| 경제 · 경영 | | 기타 | |
|-----------------|---------------|---------------------|-----------|
| 제 목 | 저 자 | 제 목 | 저 자 |
| 블루오션 전략 | 김위찬, 르네 마보안 |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 탄취잉 |
| 잭 웰치 위대한 승리 | 잭 웰치, 수지 웰치 |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 잭 웨더포드 |
| 짐 콜린스 경영전략 | 짐 콜린스 |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 스티브 도나휴 |
| 미래기업의 조건 | C. 크리스텐슨 외 | 우체부 프레드 | 마크 샌번 |
| 톰 피터스의 미래를 경영하라 | 톰 피터스 | 생각의 지도 | 리처드 니스벳 |
| 경영이란 무엇인가 | 조안 마그레타 | 대륙의 지도자 등소평 | 등용 |
|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 조영탁 |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장영희 |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안철수 | 백만불짜리 습관 | 브라이언 트레이시 |
| 괴짜 경제학 | 스티븐 레빗 외 | 용서 | 달라이 라마 외 |
|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 박기찬, 이윤철, 이동현 |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 자크 아탈리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 | 7. 7 | 7. 8 | 7. 9 | 7. 10 | 7. 13 | |
|-----------------|---------------|----------|----------|----------|----------|---------|
| 환율 | 원/달러(종가기준) | 1,273.1 | 1,276.1 | 1,279.0 | 1,282.7 | 1,315.0 |
| | 엔/달러(뉴욕시장) | 95.24 | 94.75 | 92.72 | 93.02 | 92.41 |
| 금리 | 회사채(3년AA-, %) | 4.13 | 4.06 | 4.00 | 3.91 | 3.95 |
| | 국고채(3년, %) | 5.42 | 5.39 | 5.33 | 5.26 | 5.30 |
| 주가지수(KOSPI, 종가) | 1,434.20 | 1,431.02 | 1,360.89 | 1,428.62 | 1,378.12 | |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3월 | 4월 | 5월 | 6월 |
|--------------------------------|---------|---------|---------|---------|---------|---------|---------|
| GDP성장률 | 5.2 | 5.1 | 2.2 | -4.2 | .. | .. | .. |
| 민간소비 | 4.7 | 5.1 | 0.9 | -4.4 | .. | .. | .. |
| 설비투자 | 8.2 | 9.3 | -2.0 | -23.5 | .. | .. | .. |
| 산업생산 증가율 ¹⁾ | 8.3 | 6.9 | 3.0 | -11.1 | -8.8 | -9.4 | .. |
| 평균가동률 | 80.0 | 80.1 | 77.2 | 69.3 | 71.7 | 73.0 | .. |
| 실업률 | 3.5 | 3.2 | 3.2 | 4.0 | 3.8 | 3.8 | .. |
| 실업자(만명) | 82.7 | 78.3 | 76.9 | 95.2 | 93.3 | 93.8 | .. |
| 전국 어음부도율 | 0.02 | 0.02 | 0.03 | 0.05 | 0.03 | 0.04 |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 2.5 | 4.7 | 3.9 | 3.6 | 2.7 | 2.0 |
| 수출(억달러, FOB) ²⁾ | 3,254.7 | 3,714.9 | 4,220.1 | 280.5 | 303.8 | 281.5 | 326.3 |
| (증감률) | (14.4) | (14.1) | (13.6) | (-22.1) | (-19.7) | (-28.5) | (-12.4) |
| 수입(억달러, CIF) | 3,093.8 | 3,568.5 | 4,352.8 | 237.9 | 246.3 | 230.9 | 253.6 |
| (증감률) | (18.4) | (15.3) | (22.0) | (-35.9) | (-35.6) | (-40.3) | (-32.9) |
| 경상수지(억달러) | 53.9 | 58.8 | -64.1 | 66.5 | 42.5 | 36.3 | .. |
| 외환보유액(억달러) | 2,389.6 | 2,622.2 | 2,012.2 | 2,063.0 | 2,124.8 | 2,267.7 | 2,317.3 |
| 총대외지불부담 ³⁾ (억달러) | 2,601 | 3,832 | 3,811 | .. | .. | .. | .. |

1) 통계청 (2009. 6. 30.) “2009년 5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09. 7. 14.) “2009년 6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확정치)”에 의거해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